



여름철 두피·모발 관리법

건강한 머릿결, 자외선 피하고 콩 섭취 늘리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직장동료들이 머리결 창이라고 그랬는데, 올 여름 들어 더위 때문에 인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머리에 힘도 없고 머리결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아름다운 머리결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겠어요.”

젊고 예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튼튼하고 아름다운 머리결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무덥고 습한 7월을 맞아 집에서도 전자현이나 한에슬처럼 아름다운 머리결을 만들 수 있는 생활 속 습관을 알아보고

◇ 가장 큰 적은 역시 자외선=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여름철 모발과 두피는 손상되기 쉬우며 노화가 촉진된다.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모발이 약해져 탈력을 끌게 되는 것은 물론 건조가 심해져 푸석푸석해지며, 모발 표피가 벗겨져 윤기를 잃고, 탈색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외선으로부터 모발과 두피를 보호하는 것이다.

모발과 두피를 자외선에서 결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자, 양산, 스카프 등을 써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다. 다만 두피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모자를 장시간 쓰는 것은 오히려 땀이나 세균 등에 의해 두피에 피부염이나 염증을 유발하며 탈모가 악화되므로 넉넉한 모자를 쓰되 자주 벗어 통풍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시중에는 모발과 두피를 위한 자외선 차단용 트리트먼트나 헤어 토너, 에센스가 판매되고 있다. 이런 제품은 모발을 합친 감싸주어 자외선을 걸러내거나 자외선 차단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자외선 노출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모발에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제는 실현성이 있어서 아직 결론이 더 필요해 과신은 금물이다.

◇ 머리감기는 하루 한번, 여성은 저녁에 감는 게 좋아=여름철에는 두피에 과다한 기름과 각질로 인해 세균이 활성화되며 성장, 번식할 수 있는 계절이다. 더욱이 높은 습도와 땀의 분비가 많아지면서 두피의 세균은 모공에 염증을 일으키고 모근 활동을 방해해 탈모를 촉진시키거나 모발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피지 분비 정도에 따라 머리를 자주 감아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머리감기는 하루에 한번 정도로 하면 적당하다. 운동이나 외출 후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가능한한 빨리 머리를 감아주어 두피의 땀과 피지를 닦아내고 외부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여성들의 경우 헤어스타일링을 위해서 아침에 머리를 감고 예쁘게 셋팅하는 경우가



무더운 날씨로 모낭염이 심해져 탈모 증세를 보이는 회사원이 염증을 진정시키는 광선 치료를 받고 있다.

튀긴음식·정제식품, 남성호르몬 분비 높여 탈모 촉진

귀가하면 바로 머리 감아 청결 유지… 하루 한번 적당

많은데,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침보다는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다. 낮 동안 더러워진 두피 속을 저녁에 깔끔하게 노폐물을 제거해주면 건강한 두피를 간직할 수 있다.

◇ 빛질은 머리가 마른 뒤 해야 모발 손상 적어=바다에 들어갈 때나 수영 전에는 삼푸를 미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두피에는 생리적으로 외부자극과 자외선의 흡수를 막는 천연 오일이 존재하며, 수영장의 소독 화학물질과 바닷물의 소금 등의 직접적인 자극을 막아준다. 모발이 젖어 있을 때는 손상되기 쉽다. 머리를 감은 후 영린 모발은 손으로 풀어 주고, 모발이 마르기 전에는 빗질을 하면 안 된다.

대개 사람들이 젖어 있을 때 모발을 다듬어야 원하는 스타일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모발은 마지막 물 분자와 증발하는 순간 스타일이 연출되므로 머리가 자연적으로 마르게 한 후 스타일링하는 것이 모발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여름철 탈모예방을 위해서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이 좋다. 과도한 당분과 지방 섭취는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뿐 아니라 모발에도 악영향을 주어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기름에 튀긴 음식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두피의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고 모근의 활동을 어렵게 한다. 정제과정을 거치는 백설탕, 표백제, 소금, 조미료, 백미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과도하게 정제된 식품은 우리 몸의 당분을 올리고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한다. 인슐린은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높여서 탈모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열분 섭취도 모발에 악영향을 주는데, 체내 열분이 높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장애를 일으키며 결국 두피로의 혈액순환에 장애를 갖출 수 있다.

◇ 심한 다이어트나 스트레스로 탈모의 원인=외출의 계절이 되다 보니 다이어트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심한 다이어트는 탈모를 조장할 수 있다. 모발과 두피는 세포분열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다이어트로 음식 섭취를 줄이면 모발로 가는 영양분이 줄어들게 된다. 시스

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을 함유한 케라틴 단백질은 모발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무리한 음식 섭취나 단식은 모발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부족하게 할 뿐 아니라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 두피와 모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다이어트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나 압박감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려 모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건강하고 윤기 있는 튼튼한 모발을 위해서는 풍부한 단백질 공급이 필수적이다. 종에 풍부한 단백질은 모발에 필요한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탈모를 막고 모발이 새롭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역시 모발의 건강을 지켜주는 상분 중 하나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 두피의 비듬과 탈모를 방지한다. 특히 비타민 A와 D가 들어있는 음식이 효과적인데, 케라틴 형성에 도움을 주고 두피의 피지선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로 물과 마음은 쉽게 지친다. 두피와 모발도 예외는 아니며, 평상시보다 두피 질환이나 탈모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균형 잡힌 식사와 청결한 두피, 모발 관리로 자칫 심한 탈모 이어질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평상시와 다른 탈모 증상이 2~3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는 전문병원을 찾아 조기에 상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오 헤어플랜트 미지에피부과 원장 정진우>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의료기술·신약개발 연구 박차

최근 한달새 국내외 대학·연구원 등 4곳 협약

전남대병원(병원장 송은규·사진)이 최근 한 달새 국내외 명문 대학·연구원·기술원 등 4곳과 연구협약을 체결해 새로운 의료기술과 신약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5일 영국 브리스톨대학과 뇌과학 협력연구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12일 미국 베크만레이저연구원과 생명공학 광의료 연구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국내 기관의 경우 지난달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연구협력센터 개소식에 이어 제약회사와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개발 공동연구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국립대학병원 본연의 업무인 의료연구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입과 동시에 향후 획기적인 의료기술 개발 등 놀라운 연구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 유명 연구원 등과 활발한 학제·물리 교류를 통해 전남대병원의 의료 수준도 국제 수준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돼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병원임을 입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브리스톨대학은 뇌질환의 다양한 조

기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예견

하고 일찍부터 뇌과학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세계적인 신경학 연구센터이다. 뇌과학은 미래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현재 의학계와 생물학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과 매주 1회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베크만레이

제연구원은 지난 1982년 생물학 및 의학분야에서 새로운 광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광학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응용연구센터이다.

병원 내 협력연구센터를 개설한 GIST와는 혈관종양·슬관절·심근경색증·두뇌 종양 등 4개 분야에서 기초과학과 임상의학과의 접목을 시도해 혁신적인 의료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송은규 원장은 “국내외 유명 대학 및 연구원 등과 연구협력을 체결함으로써 생명과학·뇌질환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과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족구병 유행 지속… 특별한 치료법 없어 예방이 최선

“물 끓여 먹고 개인 위생 철저히”

캄보디아에서 영유아 52명이 수족구

병으로 숨진 데 이어 최근 국내에서도 감염 어린이가 숨져 부모들의 간접을 서늘케 하고 있다.

수족구병은 주로 1~3세의 영유아에게 잘 나타나는 감염증으로 손과 발, 입 속에 물집이나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질병이다. 증상이 경미해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도 매년 1~2명 정도가 수족구병으로 숨지고 있어 유아를 둔 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 대규모 감염 위험이 높아 여름철 개인위생에 주의가 요구된다.

수족구병은 주로 코사기 바이러스 A 16 또는 엔테로 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이다. 여름과 가을철에 주로 유행하는데, 이는 원인 바이러스가 상대습도가 높은 곳에서 감염성을 오래 유지하기 때문이다. 수족구병 환자는 주로 1~3세 영유아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어른에

게도 감염된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가벼운 미열 등 초기 감기증상을 보인다. 혀·잇몸·뺨의 안쪽 점막과 손, 발 등에 빨갛게 선이 둘리 쌀알 크기의 수포성 발진이 생긴다.

손이나 발에 생긴 물집은 가렵거나 아프지는 않다. 하지만 입안에 생긴 물집은 터져 궤양이 되며 통증이 심해 음식을 먹기 힘들어진다.

현재로서는 수족구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다. 해열 진통제나 피부청결 외에 질환의 경과를 막아 주는 특별한 치료법도 없어 예방이 최선이다.

수족구병이 유행할 때는 무엇보다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물은 끓여 먹고 외출 후 손을 자주 깨끗이 씻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것이 좋다. 놀이방이나 유아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집단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 며칠간은 격리시켜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현대공인증개사

공인증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장 여려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일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주구 동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평~300평 ▷ 용도지역:지연녹지 ▷ 용도: 주차장

■ 청고동 300평 정도 대형차량정지기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92평 매도가 15억5천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20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신입지역 178평, 360평 매매기 할부 후 결정
- 지연녹지 353평 30년 도로점 농지전용 원로,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주구 도천동 지연녹지 2397㎡(725평) ▷ 평당 95만원
- 광장 창고용으로 적합
- 비아동 지연녹지 11,463㎡(3,468평) ▷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흥룡면 장성면에서 2.5km 계획단지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가은 부동산

신창동

빌딩매매

- 대지 : 630평

- 연건평 : 460평

- 보증금 3억5천만원/월1600만원

- 매매가 :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건물매매

- 대지 : 200평

- 연면적 : 150평

- 보증금 : 1억5천만원

- 월차임 : 1500만원

(부가세별도)

- 매매금액 : 29억원

주유소

매매(동구)

- 대지 : 300평

- 최고 매출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첨단산단